

# 재앙과 징계를 앞둔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킨 70인 제자 -복음으로 여는 아모스- 아모스 5:24, 마태복음 23:23

정윤돈 목사님

\* **암5:24**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 어다

\* **마23:23**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아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를 공회와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전지전능하시어서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로 창조하시어서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치있는 삶을 살 뿐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 보좌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누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축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도들이 강단의 제자가 되어서 237나라와 5천 종족 살릴 때까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응답과 해답을 얻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천명, 소명, 사명의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일본렘넌트대회에 다녀왔다. 코로나 때문에 수년 동안 집회를 갖지 못하다가 이번에 일본 전역과 한국에서 6백 명 정도 모여 집회를 했다. 제가 1990년도에 신학생들을 데리고 동경에 어떤 행사가 있다고 해서 갔었다. 미국선교사님이 20년 동안 일본선교를 하시다가 한 명도 전도를 못하고 한국선교사님에게 교회를 넘겨주고 떠나는 행사를 하는 날이었다. 그때 20년 선교해도 한 명 전도 못하는 현장이 일본이라는 불신앙이 제게 각인되었다. 그때는 찬양하고 전도지를 나눠주는 전도만 했는데, 전혀 받지 않더라. 일본이 너무나 전도하기 어려운 현장이라고 생각했다. 이번에 우리 교단에서 선교현장을 보니까 렘넌트와 선교사와 중직자가 얼마나 응답을 받는지, 우리만 일본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번에는 선교사님 따님이 시의회에 출마하게 되었다. 현장에 복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 제가 작년부터 렘넌트 중에 오쇼처럼 일본의 총리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일본의 지도자들은 제국주의적이지만 국민들은 너무 착하다. 우리가 복음으로 그 나라를 살리지 않으면 재앙과 저주가 임한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국민들은 열심과 헌신을 잘한다. 숨어있는 제자들이 많다.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중국도 신학교가 없기 때문에 잘못된 신비주의가 많다.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다. 아모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복음화시키지 않으면 그 재앙이 우리에게 온다.

오늘은 아모스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아모스서는 세상적으로는 풍요롭고 강대했지만 많은 불의와 악과 우상숭배와 도덕적인 타락 등의 영적인 문제가 가득했던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도 똑같다. 힘이 세고 돈도 많고 성장하고 있지만 불의와 고통이 많다. 일본에서 총리는 두 가문이 계속 해 먹는다. 그 라인에 들어가지 못하면 리더가 될 수 없다. 너무나 부패했다. 이러한 현장에 파송된 평범한 목동 출신인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이면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 아모스의 강단메시지에 불순종하다가 많은 징계를 받게 되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말씀을 들으면 재앙을 면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계속 재앙을 당하게 된다. 우리는 일본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요즘에 일본에 ‘푼치기’가 계속 일어난다고 한다. 전체적으로 가난해지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긴 것이다. 복음이 없어 우상을 섬기면 결국 그 길로 가게 된다. 그런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문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면 재앙이 개인과 가문과 나라에 온다.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대충 살아도 괜찮다 생각하면 큰일 난다. 시간이 지나면 재앙이 온다.

## 1. 먼저 그들의 잘못 때문에 앞으로 받을 재앙과 징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에 대하여 찾아보겠다.

(1) 첫째로 그들은 지진재앙을 받게 되었다.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때를 예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이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유다 왕 웃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예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이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유대 왕 웃시아의 시대, 남유다를 말하는 것이다. 남유다는 웃시아가 왕이었고, 북이스라엘은 예로보암 2세가 왕이었다. 성경에 ‘지진’이라는 말이 많이 없는데, 지진 전 2년이라는 것은 그 지진이 대지진이었던 것이다. 아모스가 지진 전 2년에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했는데 말씀을 듣지 않고 대충 신앙생활을 하다가 재앙을 만난 것이다. 결국 아모스의 이야기를 듣지 않은 것이다.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한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주신다. 그런데 언약을 놓치면 나도, 주변도, 후대도 망한다. 이로 보건대 이스라엘에 큰 지진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은 어떤 큰 자연재해나 사고가 일어났을 때, 혹시 그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지, 또는 단순한 자연현상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나라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일본에 원자폭탄이 떨어졌다. 후쿠시마에는 쓰나미로 인한 재앙을 만났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우리는 재앙에 대한 몇 가지 관점과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① 잘못이 없는데 겪는 고난이 있다. 대체로 문제가 없는데 내게 광야와 같은 문제가 올 수 있다. 그런 인물이 바울, 요셉, 욥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이고, 하나님의 훈련과정이다. 오히려 축복을 받는 과정이다. ② 잘못의 대가로 받는 징계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빨리 회개하고 반성하고 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업도 기업이 망하는 전조가 있다고 한다. 그럴 때 갱신해야 한다. 가장 희망 없는 인간은 나는 별로 잘못된 게 없다고 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갱신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은 희망이 있는 사람이다. 부모님과 국가를 원망하는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다. ③ 의미를 들 필요가 없는 우연한 사고나 자연현상들이 있다. 독감 걸렸는데 회개하고, 감기 걸렸는데 회개할 필요는 없다. 세상에는 다양한 바이러스가 있고 창세기 3장의 세상 가운데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당연하다. 길 가다가 넘어져서 회개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고 예배에 승리해야 한다. 전도하는 건 어렵지 않다. 내가 실수한 부분에 대해 말씀을 붙잡은 것을 나눠줘도 전도할 수 있다. 강단메시지를 가지고 그 주간에 전도하는 것이다. 그게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재앙을 막아주고 말씀 속으로 들어오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2) 두 번째 재앙은 가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아모스 1장 2절에 보면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하면 문이 열리고 축복이 온다. 문이 막히더라도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 들여야 한다.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바란다. 그리스도로 다 끝나서 사나 죽으나 상관없다고 했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걸 재앙의 현장에 우리가 전해줘야 한다. 산꼭대기까지 말랐다는 것으로 보았을 때 극심한 물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정적이고 경제적인 삶의 어려움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생수가 나오도록 하실

수 있다.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실 수 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응답받을 그릇준비만 하면 된다.

(3) 모압과 유다에게 불의 별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 아모스 2장 1절에서 2절을 보겠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별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재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아모스서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잘못에 대한 경고를 하기 전에 먼저 주변 나라의 잘못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다. 이것이 237선교이다. 우리가 만약에 주변 나라를 복음화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다. 우리의 주변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에게 재앙이 온다. 선교는 결국 우리나라가 축복받기 위해서, 다 함께 응답받기 위해서, 사단의 나라를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복음을 모르는 나라와 민족들은 그들이 당하고 있는 재앙과 앞으로 계속해서 닥칠 재앙에 대한 이유를 모르고 있다. 우리는 일본총리에게 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 중국과 일본을 변화시킬 사람은 한국인 밖에 없다. 이 재앙들의 원인과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을 때 계속 되어질 재앙에 대하여 경고하고 예방해 주어야 하겠다. 이것이 우리들이 도전해야 할 237나라, 5천 종족을 향한 선교이다. 아모스 2장 5절의 말씀도 보겠다. 여기에서도 불을 통한 징계를 말씀하고 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다 당하신 것은 우리를 재앙과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을 내 중심에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도 문제가 계속 온다. 선교현장에서 우리는 주인을 바꾸라고 계속 말해줘야겠다.

**2. 그렇다면 아모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아모스라는 인물은 설교에서 자주 언급되지는 않지만 다른 선지자들과 다른 특별한 선지자였다.** 먼저 아모스 선지자에 대하여 알아보고 아모스를 통하여 주신 치유와 언약에 말씀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아모스는 평범한 목자였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가 된 인물이었다. 즉, 지금으로 말하면 평범한 평신도 중직자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사명을 주셨던 것이다. 선교의 사명을 주셨다. 그래서 아모스는 진정한 70인 제자 중의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70인이라는 것은 평신도다. 목회자들은 그 70현장에 문을 열어야 하고, 램넛트들은 70나라의 문을 열어야 한다. 아모스서 1장 1절에 보니까 아모스는 드고아의 목자 출신이다.

(2) 아모스는 기록문서를 남긴 최초의 선지자였다. 아모스는 구약에 기록된 12권의 선지서 중에서 가장 먼저 말씀을 문서로 기록한 선지서라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현장을 살린 최초의 복음문서의 원조가 평신도 70인 제자였던 것이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아모스는 공부하는 목자였다. 당시에 글을 쓰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아모스는 말씀을 공부한 평신도 선교사다. 하나님은 그런 아모스를 사용하셨다. 그것은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였다. 초대교회 당시 최초로 선교를 한 빌립 집사도 평신도였고, 최초로 순교한 집사님도 평신도인 스테반 집사였다. 여러분들도 현장을 살리는 원조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겠다.

(3) 아모스는 아무도 없던 시대에 모두를 향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소망을 전한 복음전도자였다. 즉, 아모스는 아무도 없고, 아무 것도 없었던 황폐한 재앙의 현장, Nobody, Nothing의 현장을 모든 응답을 받게 되는 Everything의 현장으로 변화시킨 70인 제자였다. 가끔 어떤 성도들은 사람이 많으면 하고, 많이 없으면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나 어떤 사역이나 일인데 내가 먼저 해야 한다. 한 사람이라도 찾아야 한다. 램넛트는 근원으로서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4) 아모스는 시대의 아픔과 문제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을 실현한 진정한 70인 제자라고 인정할 수 있다.

(5) 아모스는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말씀과 방법을 전해주고 있다. 현장이 너무 악한데 어떻게 현장을 치유할 수 있을까? ① 그 첫 번째 방법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는 말씀이다. 아모스 5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장에서 선과 정의의 파수방대를 세우라는 말씀이다. 데모하고 정치하라는 말이 아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정의롭고 바른 사람은 없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이 구원을 얻은 우리는 현장을 정화시키기 위해 항상 선하고 바른 것을 찾아야 한다. 넘어지면 바로 회개하고 선으로 돌아가야 한다. 인간관계와 윤리와 도덕적인 부분도 그렇다. 구원은 쉽게 은혜로 받지만 일을 대충해서는 안 된다. 요셉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국무총리로서는 철저히 불신자에게 인정받을 만큼 잘했다. 일도 은혜로 해라. 말씀을 먼저 붙잡아라. 그러면 그 일을 할 수 있게 문이 열릴 것이다. 편협 되지 않게 선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파수방대를 세우면 현장의 흑암은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일본과 중국도 마찬가지이다. 그 현장에 정의와 공의를 세우게 된다. ② 현장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정의와 공의가 현장에 마르지 않고,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역할을 그리스도인들이 담당해야 할 것이다. 다 함께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을 보겠다.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우리가 한 번은 잘할 수 있다. 그러나 계속 잘하게 하는 것은 쉽지 않다. 끝까지 흐르게 해야 한다. ③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 안에 있으면 ‘민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 오직 예수,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민국을 기업으로 얻는 축복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된다. 그러나 기도는 하고 있어야겠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현장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 달라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현장의 주역 되게 해 달라고 기도는 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것이다.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겠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민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옛것을 다시 세우고민국을 기업으로 주시리라 약속하셨다. 이 응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란다.

오늘도 아모스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CVDIP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다.

1. Covenant 언약과 복음이다. 아모스는 절대불가능한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70인 제자였다.

2. Vision 비전이다.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으로 부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237나라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충만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3. Dream 꿈이다. 만약 우리들이 불신앙에 빠져 재앙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현장을 위해 24시간 기도한다면 25시의 응답과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4. Image 이미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현장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하늘보좌를 향해 집중하여 기도한다면 영적인 플랫폼, 파수방대, 안테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5. Practice 지속적인 실천이다. 구원의 길을 날마다 묵상한다면 300영점, 30다락방, 3지교회의 응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이것이 3천 제자, 40만 제자, 일천만 제자로 연결될 것이다.

끝으로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의 선동꾼이 되어서 개인과 가정과 현장의 재앙을 막는 237치유서밋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 램넛트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현장에 집중하고, 현장에서 깊은 기도하며 말씀 붙잡다가 재앙과 저주에 빠져있는 모든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나라까지도 살릴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